



“30년전 기억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죠”

영화 ‘1987’서 치안본부장 강민창 역 우현
당시 총학간부로 이한열 열사 장례식 이끌어

배우 우현(54·사진)과의 만남은 어렵게 성사됐다. 영화 ‘1987’ 개봉 이후 언론에서 술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는 모두 정중히 사양했다.

오랜 설득 끝에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주한 우현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다.

“그 시절에 누구나 다 한 일인데, 제가 마치 영웅적인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집안 걱정, 자식 걱정, 먹고 살 걱정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일 뿐이거든요.”

우현은 ‘1987’에서 당시 경찰 총수인 치안본부장 강민창 역으로 출연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는 인물이다. 우현의 실제 ‘전력’과는 정반대되는 캐릭터여서 주목받았다.

1987년 당시 연세대 신학과 4학년이던 우현은 총학생회 집행부로,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과 49재 행사를 이끌었다. 우상호 의원과 배우 안내상은 재학 시절 그와 민주화운동을 함께한 동지들이다.

우현은 “1987’은 어떤 배역이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연기한 실존 인물이 경상도 출신이어서 경상도 사투리를 처음 연기하느라 힘들었다”면서 “부산 출신인 김운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다.

우현은 이한열 열사가 연세대 교문 앞에서 전투경찰이 쓴 최루탄 파편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던 당시 집회 현장에도 있었다. 그는 “영화 속 연대 앞 시위 장면은 실제 시위 모습을 거의 똑같이 재현했다”면서 “30년 만에 다시 보니, ‘내가 그때 외면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먹먹했다”고 떠올렸다. 우현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2년이나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아내 조연(배우)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가했

을 때, 감회가 새로웠다고 했다.

“87년 이후 그렇게 큰 시민들의 물결은 처음이었죠. 무엇보다 시위 문화가 많이 발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뭔가 임팩트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건물을 점거했죠. 하지만 촛불집회 때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자발적으로 휴지를 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때 던진 10개의 돌보다, 이들이 주는 휴지 열 조각이 더 큰 반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87’ 흥행 이후 그의 전력이 알려지면서 후시 주변의 반응이 달라졌는지 물었다. “가끔 후배 연기자들이 촬영장에서 반갑게 인사를 해준다”면서 “아내는 ‘집에서든 그렇게 좀 민주적이면 안 돼?’라며 농담으로 핀잔을 줬다”며 웃었다.

대학 졸업 후 연극 프로덕션 등에서 몸담았던 그가 연기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나이 마흔이 다 돼서였다.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2003)에 우연히 단역으로 출연한 게 계기가 돼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감조’ 배우로 자리 잡았다.

개성 강한 그의 외모가 한몫했다. 2016년 MBC ‘무한도전-못생긴 친구를 소개합니다’ 특집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그는 배우 김기천과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향숙이’를 외치던 박노식 그리고 ‘통아저씨’와 닮았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고 했다. 우현은 “김기천 형님과 통아저씨를 닮았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면서 “그러나 솔직히 ‘향숙이’보다는 제가 잘생기지 않았나”며 발끈했다. 우현과 박노식은 친한 사이이다.

그는 “제가 아무리 전날 폭 자고 나와도 사람들은 늘 저더러 ‘너 어제 술 마셨느냐?’라고 묻는다”면서

“외모는 극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외모 덕분에 배역도 맡을 수 있어서 아직 의학의 힘을 빌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1987’ 주제를 벗어나니 그의 입담도 터졌다. 반전 매력도 뽐내져 나왔다.

그는 과거 한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렸을 때 쇠고기만 먹었다”고 말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친구 안내상도 “우현이가 늘 현찰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다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남들은 제가 무슨 재벌 아들쯤 되는 줄 오해하시는데, 아버지가 의사였다”면서 “아버지가 돼지고기 등 몇 가지 음식을 안 드시다 보니 먹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현은 배우 데뷔 이전에 신촌에서 맥주집을 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졸딱’ 망했다가 나중에는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됐다고 한다.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다 현금으로만 받았죠. 그래서 안내상이 출연하는 연극을 보러 갈 때는 배우들에게 술을 사주려고 호주머니에 현금을 좀 넉넉하게 가져갔죠. 그 당시에 술은 제가 다 샀습니다.”

그는 오는 8일 개봉하는 ‘조선명탐정 : 흙혈괴마의 비밀’에도 출연했다. ‘조선명탐정’ 시리즈 1편과 2편에 이은 캐메오 출연이다. “사실 제가 1편에서 칼을 맞고 죽는 설정이었습니니다. 그러나 2, 3편에도 출연하고 싶어서 김석은 감독님을 만날 때마다 ‘전 안 죽었다.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우겼죠. 정말 다시 살아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하.”

그는 배우로서 큰 욕심이 없다고 했다. “너무 뜨는 것도 싫고, 지금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두 편씩, 앞으로 10년 정도 더 연기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 데뷔 30주년 전국 투어

4월 28일까지 군산·여수 등서
‘거리에서’·‘변해가네’ 명곡 다수

동물원(사진)이 데뷔 30주년을 맞아 전국 투어를 한다.

6일 공연기획사 액티브퍼포먼스플래네 따르면 동물원은 오는 3월 31일 오후 7시 전북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콘서트를 연다. 아울러 4월 28일까지 전남 여수, 경남 창원, 충남 천안, 경기 고양 등에서 공연을 이어나간다.

동물원은 1988년 7명의 젊은이가 만든 싱어송라이터 그룹이다. 고(故) 김광석을 비롯해 유준열·김창기·박기영·박경찬·이성우·최형규 등 대학생들이 붐볐다.

이들은 1집 ‘거리에서’를 시작으로 ‘변해가네’, ‘흐린 가을하늘에 편지를 써’,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널 사랑하겠어’ 등 가요



시에 남을 명곡을 썼다.

지금은 원년멤버 박기영, 유준열과 6집부터 합류한 배영길의 팀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달 31일 군산 공연 티켓은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에서 4만4000~7만7000 원에 예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

백종원, 광고 수익금 전액 기부

저소득층 환아 치료에 도움

방송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백종원(사진)이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생긴 광고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환아들을 위해 기부했다.

더본코리아는 6일 “백 대표가 저소득층 환아들을 위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생명존중기금으로 광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며 “이번 기부는 최근 백 대표가 농심의 신제품 광고 모델로 참여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익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수술비와 치료비에 쓰일 예정이다. 액수는 백 대표의 뜻에 따라 비공개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백 대표가 가톨릭중앙의료원 부속 병원을 통해 기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번 좋은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백 대표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배우 소유진과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며, 셋째 출산도 앞뒀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아침이 좋다	0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여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해피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VJ 특공대 (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40 와일드 코리아 플러스	00 육기사(재)	00 12 MBC 뉴스 2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킹특선 휴먼터치 인 50 감성애니 하러 2 스페셜 (재)		15 앙코르 MBC 스페셜	55 닥터 365
2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15 지오메카 45 라디오스타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해상 위키 2 30 TV 유치원	35 도올스톱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평창, 나의 올림픽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10 남도 지오그래피 30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생방송 평창	00 스톤에이지 15 영동발달공순이와 친구들 40 행복찬 지도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애 연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강력추천 배틀 트립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35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연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미워도 사랑해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허랜드 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 9 50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하키드림 기적의 1승을 향해			
10	40 숨터 45 KBS 뉴스타임	00 육기사	0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리턴
11	15 문화의 향기	10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싱글와이프 1~2부
12	0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세상의 모든 다큐	45 도올스톱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글로벌 애반 찾아 삼만리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미 서부 트레일 그랜드캐니언)	10:30 한국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두부튀김과 꿀자몽)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00 EBS 정오 뉴스
07:30 띠띠뽀 띠띠뽀(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0 지식채널e
08:00 당동명 유치원 1~2	12:45 EBS 초대석(재)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13:40 미래강연 Q(재)
08:45 한글이 아호2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9:00 똑딱맨	15:00 마사와 곰
09:15 두다다쿵(재)	15:30 호기심 나라 오키도
09:30 플랑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0:50 세계테마기행
16:30 한글이 아호(재)	<알프스에 살다 오스트리아 3부 티롤 알프스 협곡시어로>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21:30 한국기행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겨울이면 그림자원 3부 겨울, 잠 못나다>
17:30 강철소방대 피아로보	21:50 EBS 다큐프라임
17:45 뽀롱뽀롱 뽀로로	<한국사 오천년, 생존의 길 패권교체의 생존전략>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너하니1~4	22:45 극한직업
19:00 몬카르(재)	<소방관과 응급실 의료진>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23:35 장수의 비밀
19:30 EBS 뉴스	24:25 지식채널e
19:50 장수의 비밀	24:30 미래강연 Q
20:40 다큐 오늘	
<육류 가공 공장>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7일(음 12월 22일 庚午)

<p>子</p> <p>48년생 서로 통하여 말하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60년생 아무리 좋아도 차제에 확실하게 청산하는 것이 길조를 부른다. 72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84년생 긴장 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5, 79</p>	<p>午</p> <p>42년생 큰 기대 하지 말라. 54년생 외관에 이끌린대세를 가 능하기 힘들어진다. 66년생 미리 준비해 둔다면 마지않아 힘이 될 것이다. 78년생 바라보고만 있어도 능히 효과가 있다. 90년생 계획된 바를 진행하기에 썩 좋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69, 50</p>
<p>丑</p> <p>49년생 핵심사항의 확보를 위해 상호간에 이전투구 하는 형상이 로다. 61년생 실리보다 중요한 것은 조화로운 관계임을 알자. 73 년생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85년생 주된 것을 위주로 이끌어 간다면 타개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3, 47</p>	<p>未</p> <p>43년생 빨리 벗어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55년생 감안하고 처리하라. 67년생 우연한 행운이 기쁨을 안겨다 주는 형세이다. 79년생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이다. 91년생 만만치가 않으니 단단히 버려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6, 14</p>
<p>寅</p> <p>50년생 확실하게 한계를 긋지 않으면 정래에 난처한 입장이 된 다. 62년생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않다면 공허할 것이다. 74년 생 공들여 왔던 일에 대한 회소식이 들려올 것이니라. 86년생 돈 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되리라. 행운의 숫자 : 44, 24</p>	<p>申</p> <p>44년생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하 게 될 것이니라. 56년생 매듭이 풀리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겠 다. 68년생 내용을 다 드러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리라. 80 년생 독창적인 방책을 세우자. 행운의 숫자 : 92, 37</p>
<p>卯</p> <p>51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열고 기쁘게 맞이하라. 63년 생 확신이 있다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75년생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 국세이다. 87년생 자신감을 갖는 긍정 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5, 99</p>	<p>酉</p> <p>45년생 소망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57년생 원리 원칙대 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 하느니라. 69년생 하지는 없으니 마 음 놓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81년생 뻔히 보고 있으면 서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6, 71</p>
<p>辰</p> <p>52년생 드러나지 않은 결림들 있다는 것을 알고 다녀야겠다. 64 년생 제대로 살펴보고 임해야 할 것이다. 76년생 성장을 기약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시세이다. 88년생 정략하게 선 별해 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2, 66</p>	<p>戌</p> <p>46년생 서서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58년생 다방면으로 각별 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70년생 주장하는 것 보다는 수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82년생 즐겁고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니 기대하시라. 행운의 숫자 : 17, 91</p>
<p>巳</p> <p>53년생 반드시 실수 있는 관계로 이끌어갈 것 이니라. 65년 생 꼭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한다. 77년생 자신의 정서와 부합하기 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느니라. 89년생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 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2, 81</p>	<p>亥</p> <p>47년생 단순해야 한 곳에 집중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59년생 그 동안 공들여 왔던 것이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71년 생 뒤따르는 이가 보이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83년생 성공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다. 행운의 숫자 : 01, 43</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